

직선과 곡선의 미학

“직선의 도시에 살고 있다.”

나는 간혹 내가 이과적인 논리와 명확하게 떨어지는 값에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닌 지에 대해 생각해보고는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직선으로 정리되고, 직선으로 보여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안을 정리할 때에도 무언가 어그러져 있는 것은 완성되지 않고, 할 일을 마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 늘 책을 꽂을 때에는 순서대로, 크기 별로 꽂아두고, 집안에 있는 가구나 의자 등의 작은 집기구를 배치할 때에도, 인테리어용으로 산 컵이나 인형을 정리할 때조차 나란히 정리 하는 것이 가장 잘 정리된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직선을 곡선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직선인 상태일 때가 가장 내가 이전부터 많이 접해왔던 것이며, 익숙하기에 편안하고 옳은 것이라고 은연중에 여겨진다는 점 때문이다.

직선에 익숙하다. 라는 것을 나를 포함한 우리는 흔히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직선과 곡선에 대해 떠올려보며 문득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둘러보았을 때, 나는 내가 직선들로 둘러 쌓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모반듯한 아파트, 창문, 거리의 가게들, 책상과 컴퓨터, 내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직선으로 이뤄진 이른바 현대의 건축물과 디자인이었다.

단순한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검정색이나 무채색이 주류를 이루며, 유리나 날카로운 철제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 단순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직선의 건축물에 가장 잘 어울리고, 대부분의 현대 건축은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었다. 소재나 연결부위 역시 이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듯 오히려 감춰두지 않고 드러냄 으로서 때로는 아직 색을 칠하지 않은 미완성 건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매력을 더욱 좋아하는 것이 현대인들이기에, 나 역시 그 직선의 차가운 구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90도의 각도에 익숙해 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세련되고 멋스러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작품에 몇 년 동안 직선을 사용한 기하학적 형태만을 고집했던 이유 였다.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 과연 그럴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건축물이나 공예품처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들을 보고 ‘아름답다.’ 라는 감정을 가졌던 것은 그런 현대적인 직각 90도의 건물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직선과 단순함을 두고 ‘가장 효율적이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름답다. 라는 말을 나는 내가 아는 다른 건축에게 주고 싶은 찬사다.

“직선의 의미, 곡선의 아름다움”

직선은 늘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는 한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거나, 더 멀리 뻗어 나가고자 한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가진 역사 속의 수많은 욕망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인류는 존재했던 이래 끊임없이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나가고 싶어했다. 높이는 바벨탑을 쌓고, 중세에 고딕양식의 건축물과 성당을 지어 하느님이 있는 하늘의 세계에 좀 더 가깝게 닿겠다며 누가 누가 더 높은 건축물을 쌓는지 내기라도 하듯이 고딕 건축물을 올려댔고, 멀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대륙 밖, 나라 밖, 바다 건너 더 넓은 세계로, 더 빨리 나가서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상을 꿈꿨다. 그들이 곡선처럼 둥글게 주변의 것을 아우르거나, 자기들끼리 뭉쳐서 더 이상 뻗어 나가려 하지 않았다면 있지 않았을 것들도 인류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 더 크고 부유한 것들을 차지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알고 나서 나는 직선이란 곧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높은 첨탑도, 고딕양식의 건축물도, 지금까지 몇 세기에 걸쳐 무너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곡선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수적이었다. 높은 첨탑과 성당의 벽면을 이루는 무거운 대리석이나 철퇴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첨두 아치 尖頭 arch, 지골궁륭 支骨穹 ribbed vault, 버팀도리 飛梁 flying buttress 라고 불리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는데 이 중에서도 첨두 아치의 존재는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유지시켜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아치형의 문, 창문을 수없이 벽 가득 만들지 않는다면 대리석과 돌, 철의 힘만으로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조명장치 등의 인테리어가 발달하지 않은 중세시대에 성당 안으로 바람이나 공기 하나 들어갈 수 없어 모든 것들이 썩어 무너졌을 것이 분명하다. 벽의 좌우로 가해지던 수평 추력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양쪽 아치의 기둥 옆으로 분산시켰다. 그리고 장식용 색유리 stained glass와 같은 성당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모든 것들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만큼 곡선의 아치는 부드러워 보이는 외견의 모양과는 달리 직선의 첨탑에 비해 훨씬 강하고, 단단하며, 높은 하중을 충분히 부담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건축물에 있어 직선보다 곡선이 훨씬 기능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아치 이외에도 '지골궁륭'의 존재로도 증명된다. '지골궁륭'은 갈비뼈 모양으로 엮어 만든 둥근 천장이라는 의미로 원통형을 둘로 자른 것 같은 터널형의 구조물 대신 활로 휘어진 여러 개의 띠 모양의 아치형 석재를 천장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로 엮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여러 개의 석재를 올린 형태의 조합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적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웅장함과 기둥의 중심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효과까지 있어 신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 성당의 건축 이유에는 매우 부합하는 양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직선은 인간의, 곡선은 신의 선이다.”

나는 직선과 곡선을 내가 살고, 가장 가까운,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접해왔던 건축물에 빚대어서 생각해보았다. 직선과 곡선, 어느 쪽을 내가 더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 감정과, 직선과 곡선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말한 것 같은 기능적인 면과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단지 책을 정리하고 가구를 배치하던 일상 속에서 가졌던 직선의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고집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곡선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아는 곡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였던 곡선과 빛의 마법사, 안토니 가우디, 그리고 나는 스페인의 유명 건축가 가우디를 떠올려보았다. 바르셀로나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 '구엘 저택, 밀라 저택, 성 가족성당,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무채색의 차가움이 존재하지 않으며, 척추동물의 몸 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 같은 구불구불한 곡선만이 느껴지고 보인다. 그는 직선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낸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던 건축가였고, 그의 건축물은 아름다운 색깔부터 그 모양까지 식물과 동물, 우리가 사는 자연과 자연스럽게 호흡한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남기고 있다.

나는 생각했다. 효율적이고, 단순한 것의 아름다움보다, 주변의 어떤 것과도 어우러지듯 자연스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삶과 같은 곡선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곡선을 이용하여 나만의 정의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다.